

우리의 령토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즉시적인 섬멸적반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명령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연평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장재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

이른아침 식사도 번지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7坪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풍랑을 헤치시며 기별도 없이 이곳 방어대에 도착하시었다.

꿈같은 행복에 접한 군인들이 눈물속에 러쳐올리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가 땅땅한 바다위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었다.

군인들이 올리는 열광의 환호소리에 달려나온 섬방어대 군인가족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에 저저마다 안겨들며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서있는 아이들의 불을 다정히 쓸어주시며 아버지는 무엇을 하는가도 물어주시면서 태어난지 6개월된 정항명어

린이를 사랑의 환포에 안아주시었다.

포성을 들으며 사회주의조국을 지키는 투사들로 역세계 자라나고있는 어린이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장재도는 물에서 멀리 떨어져있지만 혁명의 진지이며 군인들의 삶의 당의 피줄과 이어져있다고 하시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없는 섬방어대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보고싶어 최고사령관이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외진 섬에서 누가 보진말건 조국이 맡겨준 초소를 지켜가는 군인들은 모두가 혁명가, 애국자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물을 그리워하지 않게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아침이슬을 헤치시며 감시소에 오르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화력진지들의 배치상태와 방어대가 격각할 목표지점들을 일일이 료해하시었다.

눈앞에 도사리고있는 적들이 무력증강 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데 맞게 방어대의 무장장비를 더욱 원만히 갖추는 문제, 화력밀도를 높이는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명령만 내리면 언제든지 포탄을 날릴수 있게 만단의 전투동원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갖추고있다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있는 적들이 불질을 해대면 호되게 답새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의 관문인 장재도를 섬방어대 군인들에게 맡긴다고 하시면서 생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의 병실, 교양실들을 돌아보시며 물보장, 전기보장 등을 알아보고 열점지역에서 생활하는 군인들을 위해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날에 내린 비로 미끄럽고 가파로운 길을 뚫으시며 감시소로 오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로 가시는데 길에서 연평도에서 날아온 적들의 포탄이 떨어졌던 자리들을 보아주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연평도의 적들이 열점의 불출기가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무도에 무모한 포탄을 날렸다가 이곳 방어대군인들이 치솟는 증오를 안고 퍼부은 백발백중의 명중포탄에 호되게 얻어맞았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원수들에게 조선인민군 포병의 본때 보여준 1포에 영웅칭호를, 무도방어대에 영웅방어대칭호를 수여할것을 친히 제의하시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어 감시소에서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연평도를 주의 깊게 바라보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는 남녘땅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방어대의 역량배치상태, 전투준비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연평도에 각종 무기들을 증강배비하는 적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그에 대응한 전투동원준비상태를 점검하려고 왔는데 대단히 만족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정을 안고 방어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더욱 튼튼히 다짐으로써 적들의 그 어떤 불의의 침공도 제때에 짓밟개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도방어대 군인들이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구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지지 않게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적들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며 우리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어지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가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만약 침략자들이 전쟁을 강요한다면 서해를 적들의 최후무덤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무도방어대 군인들이 조국보위성전에서 자랑찬 위훈을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생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 군인가족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사기자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피괴호전광들의 무모한 침략전쟁도발 책동으로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길이 터질수 있는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보도원바와 같이 20일부터 남조선전역에서는 미제침략군 3만여명과 괴뢰군 대병력 그리고 오스트랄리아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 여러 나라 군사인원들이 참가하는 도발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진다.

방대한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고 많은 추종세력까지 끌어들이며 벌려놓는 이번 전쟁연습은 그 규모와 성격으로 보나 혼란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험천만하고 극악한 침략행위이다.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은 그 무슨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있지만 이번 훈련이 우리혁명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하고

전민족적성전으로 전쟁미치광이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역사적승리를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체 합동성명

우리의 핵 및 미사일기지를 비롯한 전략적저점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있으며 북을 점령하고 민사작전까지 계획하고있는 종합적이며 최종적인 시험전쟁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울지 프리덤 가디언》전쟁연습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용납 못할 군사적도발이며 우리에게 대한 전면적인 선전고이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최고조범을 감히 건드려보려고 특대형 국가정체로보편적에 매달리는것도 모자라 지난 6.25침략전쟁때처럼 추종국가군사인원들까지 끌어들이며 북침전쟁도발에 광분하고있는

미제와 괴뢰패당의 무모한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지금 미국과 괴뢰패당은 세기적 대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전진해오고 오늘을 백두의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천만군민이 일심단결하여 백두산대국의 기상을 떨치며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곧바로 나아가는 선군조선의 힘찬 발걸음에 전율하여 갖는 발악을 다하고있다.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약정으로 민심을 완전히 잃고 내외의 규탄배격으로 산송장

이 된 리명박위새끼패당은 막대한 공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미국상정과 함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뛰어들어 날뛰고있다.

우리는 이미 선군의 기치밑에 그 어떤 침략자들이 덤벼들어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할수 있는 무적의 군력과 막강한 자위적억제력을 튼튼히 갖추었다.

우리의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 강한 김정일애국주의와 일심단결이 있다.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단행하신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을 원추격멸의 의지로 뜨겁게 끓어번지게 하고있으며 천만군민의 열적의 기세는 분출하는 용암처럼 하늘을 찌르고있다.

위대한 백두령장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었다.

미제와 괴뢰적패당이 감히 서툰 불질을 해대면 그것은 국

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반타격을 가할것이며 나라의 분렬로 온갖 고통과 불행에 당해온 남과북, 온 겨레의 원한과 저주를 담아 전민족적성전으로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리고 조국통일대전의 역사적승리를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

위대한 백두령장의 명령을 받들고 수령결사옹위, 조국결사수호정신과 필승의 신심으로 만장약된 우리의 천만군민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가장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세계는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백두산대국이 전쟁미치광이들에게 어떤 불벼락을 안기게 해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 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주제101(2012)년 8월 19일 평양